

# 광산구, 기관·단체와 협력...지역일자리 활성화

### '광산일드림센터' 개소 공식운영 인재양성·취업지원 협약 잇따라 광산시민수당 정책 지속 확대



지난 23일 열린 광산일드림센터 개소식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지역일자리 안정과 활성화의 핵심 기지로 거듭나는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인재 양성 및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31일 광산구에 따르면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를 민선 8기 구정 핵심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상생과 협력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모두가 잘 사는 상생경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최근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공식 운영에 들어간 '광산일드림센터'가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와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협력해 운영한다.

산업구조 대전환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가전산업 위기노동자의 심리 상담, 이·전직 지원을 비롯한 기본적인 구인·구직, 일자리, 복지 연계 등 고용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송정작은도서관 인근(광산로72)에 마련한 본관은 취업상담서비스와 광역취업센터 연계를 중심으로, 광산구청 앞 별관은 지역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광산구일자리드림센터 연계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위기노동자 발굴을 위해 광산구 관내 240개 기업 모니터링단을 구축·운영하고 고용회복력 강화와 안정적 고용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및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도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달 30일 사단법인 스마트인재개발원과 미래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분야 전문 교육 기관으로, 광산구와 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미래산업 분야 인재 취업 연계 및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 동·남·서·북구와 '일자리 사업 협약'을 맺고, 청년, 여성, 중장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와 참여자 모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지방보훈청과는 군복무를 마친 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취업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광산시민수당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조례 제정 및 광산시민수당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도화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아동 틈새돌봄, 병원동행 등 사회공헌활동에 수당을 지급하는 광산시민수당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주민참여 촉진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광주시가 공공안전, 환경, 재난구조, 돌봄 등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참여수당'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참여소득을 시도한 광산구의 사례가 더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려는 여러 기관의 의지가 광산구로 속속 모이고 있다"며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좋은 공동체를 구현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쓰레기 수거기사 작업 전 음주 측정

### 시행 후 사고 현저히 감소...노조, 인권침해 주장 인권위 제소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쓰레기 수거무무를 전담하고 있는 환경직 직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작업 시작전 음주측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환경직 노조측이 '작업 시작전 음주측정'은 인권침해에 해당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집단 농성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1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새벽에 출근하는 환경직 직원들의 특성상 전날 먹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다 보니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의심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0년 3월과 6월, 2차례 걸쳐 노사 합의 사항으로 '작업 시작전 음주측정'을 의결해 2년째 시행하고 있다.

공단측은 이번 '작업전 음주측정'을 시행한 결과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의심된 단순 접촉사고가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작업 시작전 음주측정'을 시행함에 따라 세워져 있는 차량을 부딪치는 접촉사고도 지난해 27건에서, 올해에는 8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업전 음주측정' 후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당일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1년 32명, 올해는 42명이 당일연차를 사용하는 등 사전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는 공단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직 노조 집행부가 바뀌면서 '작업 시작전 음주측정'이 인권침해에 해당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구청 앞에서 연일 집단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단측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측 관계자는 "이번 음주측정을 놓고 노조측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이 빈번하다고 판단 해 노사 합의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작업전 음주측정'은 환경직 직원 가운데 조장과 반장을 선임해 환경직 직원이 출근하면 차고지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곧바로 음주측정기를 사용해 음주측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경찰서-송광한가족센터 '가정폭력 공동대응' 협약

광주 광산구가 광산경찰서, 송광한가족상담센터와 함께 가정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지난 26일 광산경찰서, 송광한가족상담센터와 '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폭력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세 기관은 협업체계 운영, 재발우려가정 사후관리, 합동사례회의,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 공유, 폭력예방사업 확대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의 초기 대응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상담소로 연계해 위기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제공한다.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민선8기 4대 분야 42개 공약 실천계획 검토 평가

광주 광산구는 지난 26일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19명을 위촉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첫 회의를 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광산구 공약실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평가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는 첫 시도다. 평가단은 시민과의 약속인 구청장 공약의 실천계획 수립 참여부터 공약 확정 후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광산구는 이날 공약 실천의 투명성·민주성 강화를 위해 공개 모집한 공약이행평가단에 위촉장

을 전달하고, 민선 8기 공약 수립과 이행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공약 추진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및 실천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광산구는 ▲소통으로 친근한 행정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 ▲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문화관광 꽃피는 도시 등 4대 분야 42개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검토·보완한 후 부서 실천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고 민선 8기 공약을 확정·공표할 방침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 추석 앞두고 성수물품 물가 관리

광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 물품을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광주 대인시장 상인회 교육관에서 민생경제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5개 자치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 23개 기관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부터 물가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원산지·가격표시 미이행,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단속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반도 구성했다. 참여 기관들은 착한 소비 캠페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성수 식품 특별점검,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성수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상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물가안정 정책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일회용 컵 1만2천개 줄이기 광주맥주축제서 6일간 실험

늦더위를 식힐 광주 맥주 축제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실험이 이뤄진다.

지난 31일 광주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리는 '비어 페스트 광주'(Beer Fest Gwangju) 현장에는 다회용 컵 2500개가 비치된다.

시민들은 부스에서 구매한 맥주를 마시고 광주 청년 인공지능 기업인 디투리스소에서 개발한 회수기 '컵박스'에 반환하면 된다.

컵은 북구 희망지활센터, 서구지역활센터 '용기 워시 사업단'에서 세척해 다시 부스에 전달한다.

일부 미회수 분량을 고려하더라도 6일 동안 모두 1만 2000개 이상 일회용 컵 사용을 대체할 것이라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전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우유 팩, 커피 찌꺼기, 일회용 컵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원순환 녹색 카페 3가지 도전'을 올해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